

시 노래하지만 실제 ‘소설 주인공같은 삶’ 이야기로 풀다

‘오월’ 전국 알린 김준태 시인 첫 소설집 출간

도서출판 b서 ‘오르페우스는 죽지 않았다’ 펴내

장편액자·중편 구성…소소한 일상과 서사 투영

아픈 생 함께 해온 반려자 이명숙씨 삽화 70점도



김준태 시인

등단 56년차를 맞은 그는 광주·전남 대표 시인으로 꼽힌다. 그는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 참화를 모두 겪어 왔다. 할 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오사카로 강제 징용돼 노무자로 일했고, 아버지는 일본 제국주의 전쟁에 강제 징병돼 오키나와 태평양 전쟁에 끌려갔으나 심야에 전신마고 끝 탈출,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후에 보도연맹 사건(150~200만 학살)으로 별세하는 등 은 가족이 한국근현대사의 비극을 비껴가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은 베트남전 참전과 5·18민중항쟁 때 광주학살의 참상을 만천하에 알린 시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심자가여!’를 발표, 수배자의 삶과 해직교사로서의 아픔을 간내해야 했다.

현재도 그의 삶 한가운데는 5·18이 살아있고, 5·18 시민군들

의 삶을 보듬어 안기 위해 꾸준하게 창작하며 노력해왔다.

그는 시를 쓰지만 꼭 소설 속 주인공같은 삶을 살아온 장본인으로 인식된다. 그런데 그가 소설을 들고 우리를 앞에 나타냈다. 그를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국내 유명한 시인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30년 전 소설가로 데뷔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결과다.

주인공은 ‘참깨를 털며’와 ‘나는 하느님을 보았다’ 등을 발표해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전남 해남 출생 김준태 시인이 그다. 그가 445쪽 분량의 첫 소설집 ‘오르페우스는 죽지 않았다’ (도서출판 b)를 펴냈다.

표제로 쓰인 ‘오르페우스는 죽지 않았다’가 그의 소설 등단작이다. 표제에서 ‘오르페우스’는 그리스 로마신화 영웅들 가운데서 특이하게 노래와 연주를 통한 음유시인으로 활약한 영웅을 지칭한다. 1995년 ‘문예중앙’ 여름호에 발표했던 작품이며, 광주에서는 생활정보신문인 사랑방신문에 3년 동안 70편을 시민들에게 소개한 바 있다. 그 뒤로 20편을 더했다.

더욱이 이번 소설은 5~7분이면 모두 읽을 수 있는 분량의 장편 액자소설로 ‘이어도를 본 사람은 죽는다’와 중편 ‘오르페우스는 죽지 않았다’로 구성됐다. ‘이어도를 본 사람은 죽는다’에는 90편의 액자소설이 실렸다. 액자소설은 소설 속 소설로 독일에서 유행했고, 근래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다.

‘오르페우스는 죽지 않았다’는 15년이 지나도 여전히 광주주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장인물들을 통해 드러낸다.

이 소설에는 실제 인물들인 자신을 포함해 성악가와 화가, 스님, 목사 등 5명이 등장. 새로운 소설적 발상 전환을 추구한 작품이다. 그는 이 소설을



‘포옹’ 267쪽 이명숙 작 삽화

통해 현실에 바탕을 둔 이야기야말로 시와 소설이라는 장르로 구분되지 않을 뿐더러 시와 소설이 한 몸임을 설파한다.

이어 ‘이어도를 본 사람은 죽는다’는 작가의 페르소나인 허만중씨가 화자로 등장해 광주와 서울, 미국과 베트남, 독일 베를린 등 세계 곳곳에서 과거와 현재를 망라한 사람들을 만나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물론이고 화자·작자 이야기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두 작품은 30년의 격차를 두고 있지만 시인이 부르는 노래이자 불어날 시대의 호흡으로 연결돼 있다.

그의 노래에는 1980년 오월 광주의 상처가 여전히 곱들대고 그로 인한 참다운 세상에의 갈구와 광주공동체를 구현하려 함께 한 이들의 발자취를 망라해 그 인물들의 역사를 이기고자 했던 역동적 삶과 의지를 따른 ‘시’가 되고, ‘소설’이 됐던 문학적

행간에 담아낸 것이다. ‘노래’라고 하는 시와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 팔순을 앞둔 시인이 오르페우스의 신화적 상상력에 비로소 가닿고자 하는 그 마음의 언저리를 조금이나마 짐작해볼 수 있을 듯하다.

이번 소설집에는 그의 평생 반려자로 동고동락해온 이명숙씨의 삽화(그림) 70점이 더해져 의미를 더한다. 누구보다 그를 잘 알기에 가벼운 터치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아픈 생의 마디마다 함께 해온 삶의 관록과 진정성이 배어났다.

너무 가난해 1년에 장편 10권씩 펴낸 발자크가 총 100권의 저서를 남기고 사망했는데, 후에 빅토르 위고가 그가 사망했을 때 그의 손을 보고 이 손으로 이렇게 많은 작품을 썼다며 통곡했다는 일화를 소개한 김준태 시인은 “함께 살자” 그것이 광주 정신이다.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것. 그것이 1980년 5월 절대 광주공동체였다. 이승철 시인에 의하면 국내에서 소설은 남편이 쓰고, 그림은 아내가 직접 그린 작품 사례는 없다고 들었다. 그렇게 의미깊은 이번 작품집은 집사람에 현사의 뜻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조기조 도서출판 b대표(시인)는 표사를 통해 “저자는 ‘오르페우스는 죽지 않았다’를 통해 5·18 광주에서 시작했으며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 전체로, 세계로 자신의 문학을 확장해 왔다”면서 “이 소설집에 실린 두 소설은 광주를 뜨겁게 경험했던, 그리고 이제는 원로 시인이 된 김준태의 삶을 생생히 보여주는 것을 넘어, 오늘날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 혹은 극적인 서사로 아름답게 거듭나고 있다. 오르페우스는 단순히 그리스 신화에서 빌려온 인물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상이자, 사랑과 생명과 평화의 생명체를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빛으로 연대 메시지 전파…‘제16회 광주여성영화제’ 폐막

‘우리는 빛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소외된 여성과 소수자들을 빛으로 연대하는 메시지를 전한 ‘제16회 광주여성영화제’가 지난 10일 폐막했다.

광주여성영화제집행위원회(위원장 김체희)가 선보인 이번 영화제는 지난 6일 개막해 광주극장과 CGV광주금남로, 광주독립영화관에서 5일간 진행된 가운데 11개국 56편(장편 23·단편 33)이 스크린을 채웠고, 4000여명의 관객들이 함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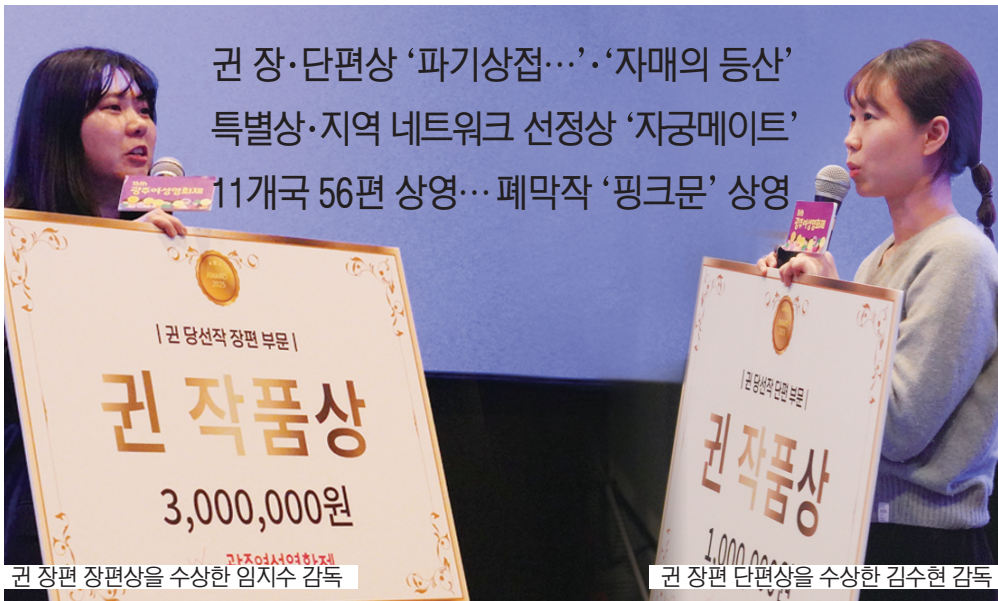
폐막식에서는 광주여성영화제의 꽃인 ‘권 당선작’ 장·단편 경선 시상이 진행됐다. 올해 접수작(장편 35·단편 439) 중 본선에 진출한 작품(장편 8·단편 12)에 대해 각각 권 작품상, 특별상, 관객상 부문 심사가 이뤄졌다.

권 장편 장편상은 임지수 감독의 ‘파기상점: 깨진 그릇 불이기’, 권 단편 특별상은 김이향 감독의 ‘이방인의 텃밭’, 권 장편 관객상은 오재형 감독의 ‘소영의 노력’에 돌아갔다.

권 단편 작품상·관객상은 김수현 감독의 ‘자매의 등산’, 권 단편 특별상은 노희정 감독의 ‘자궁메이트’가 받았다.

김경례 전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영화제 기간 스크린 너머로 전해지는 여성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연대의 감정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고 평했다.

심이안 감독은 “돌봄, 노동, 꿈, 삶, 여성의 신체 등 삶의 본질적인 주제를 각자의 방식으로 풀



권 장편 장편상을 수상한 임지수 감독

권 단편 단편상을 수상한 김수현 감독

어내며, 저마다의 언어로 세상을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지역에서 영화를 만드는 여성 감독들의 열정과 노력을 기리기 위해 올해 처음 신설된 ‘여성영화제가 사랑하는 올해의 영화상’은 노희정 감독의 ‘자궁메이트’가 선정됐다.

지역여성영화제 네트워크(대구·부산·서울·익산·인천·전북·제주)는 “영화 ‘자궁메이트’는 여전히 전쟁터인 여성의 몸에 대한 새로운 세대의 감수성과 담대한 상상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폐막작으로 윤한석 감독의 ‘핑크문’이 상영돼

여성 최초로 이중선 미술상을 받은 화가 윤석남의 삶과 예술세계를 통해 예술과 연대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김체희 집행위원장은 “올해 여성영화제는 ‘우리는 빛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서로의 이야기를 비추고, 다양한 목소리가 만나는 장을 만들고자 했다”며 “무엇보다 이 자리를 찾아주시는 관객 여러분이야말로 영화제의 마지막 장면을 완성한 ‘빛의 주인공’이다. 16회 광주여성영화제가 영화인들과 관객들에게 빛나는 순간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전남대 국악과 동문들, 품격 높이는 무대 선사

동문음악회, 오늘 예술대학 예방홀서 판소리·기악합주 등…화합·소통 다져

전남대학교 국악학과 동문들이 국악에 대한 열정과 정성을 담아 마련한 ‘전남대학교 국악학과 동문음악회’가 13일 오후 7시 30분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예방홀에서 열린다.

전남대학교 국악학과와 수많은 동문들은 전국 각지에서 공연, 교육, 연구, 창작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악의 저변 확대와 현대적 계승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동문음악회는 이러한 예술적 성과를 한데 모으고, K-컬처의 한 축으로 전통예술의 가치와 잠재력을 널리 알리는 뜻깊은 행사다. 다양한 세대의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악의 아름다움을 함

께 나누는 무대로, 전통예술의 맥을 이어가고자 하는 뜻이 담겼다. 무대는 동문 간 화합과 소통을 통해 한층 탄탄한 예술 네트워크를 다지고, 전통음악의 품격을 보여줄 수 있는 레퍼토리로 채운다.

먼저 ‘아리랑’을 바탕으로 본조·밀양·진도 아리랑 등 선율을 변주한 가야금 앙상블곡 가야금4중주 ‘아리랑놀이’로 공연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 전북 정읍지역 우도농악의 장단과 발림을 바탕으로 한 김병섭류 선발선장곡, 흥부가 박 세통을 타면서 뜻밖의 부를 얻는 ‘흥보가’ 중 ‘첫째 박타는 대목’을 무대에 올린다.

가야금병창 단가 ‘호남가’와 ‘수궁가’ 중 ‘고고천변’, 국악 대표 기악합주로 자리잡은 ‘시나위 반주’, ‘남도민요’ 중 ‘흥타령’과 ‘자진유자배기’, ‘진도아리랑’ 등도 만날 수 있다.

정채경 기자



전남대학교 국악학과 동문음악회의 무대 모습.

총장로 4·5가 주민들 노래·장기자랑 한마당

내일 오후 5시 총장22 문화센터 열린광장…전기호·박수아 초청

총장로 4·5가 주민들이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화합의 장인 ‘총장로 4/5가 주민한마당’이 14일 오후 5시 총장22 문화센터 열린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총장22문화사업단이 주최하고 총장로 4·5가 번영회가 주관해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지역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민한마당은 노래 및 장기 자랑을 비롯해 초대 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상세 프로그램으로는 소리꽃 공연단의 통기

타 가수 소연의 축하무대를 시작으로 단비의 오가리나연주, 아랑장구 박연주의 트로트 파티와 춤바람 신바람 댄스, 장기자랑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초대가수로 미스더트트로 얼굴을 알린 전기호와 라틴가요 박수아의 특별 공연이 예정돼 있어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즉석 노래자랑 및 장기자랑 코너가 마련돼 숨겨진 끼와 재능을 발산할 기회가 제공된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잔액 0원’ 전남 문화누리카드 소진 이벤트

28일까지 온라인 참여…선착순 170명 상품권·기념품 증정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은 오는 28일까지 전남도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 잔액 소진 이벤트-2차’를 진행한다. 문화누리카드는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과 계층간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14만원을 지원하는 카드로, 문화예술과 국내여행, 체육활동 분야의

등록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이벤트는 문화누리카드 대상자의 남은 잔액이 연말에 자동 소멸되기 전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기획한 사업이다.

참여 방법은 이벤트 기간에 문화누리카드 잔액을 ‘0원’으로 소진한 영수증을 네이버 폼이나 이메일(voucher@jncf.or.kr), 문자 및 전화 등 다양

한 장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 가운데 선착순 170명에게는 GS25 모바일 상품권(5000원권) 또는 기념품이 제공된다. 결과는 12월 3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은영 대표이사는 “전남 소외계층의 문화누리카드 대상자가 더 많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획 사업을 통해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문화재단 누리집(jncf.or.kr) 확인하면 된다. 문의 061-280-5847~8.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